

월간 주요 이슈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9. 25.)

휴대형 유모차, 품질·성능 전 제품 우수하나 가격 차이 커 -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잡이에 짐 걸지 말아야 -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휴대용 유모차의 품질(기본·섬유 품질, 내구성 등),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였다.
-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접고 펴기·등받이 각도 조절·햇빛 가리개 길이 등 주요 편의기능은 제품별 차이 있어
 - 8개 중 6개 제품이 한손으로 접고 펴기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2개 제품은 한손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다.
- 기본 안전성은 문제없으나 손잡이에 짐을 걸면 전도 위험 있어
 - 유아가 접촉할 수 있는 부위(시트·안전벨트 버클 등)의 유해물질 안전성, 안전바 커버의 부품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넘어짐 안정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kg의 짐을 걸 경우 평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 대부분 제품, 의무표시사항 표시 미흡해 개선 필요
 - 8개 중 6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 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의무표시사항 아님)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